

물건리

시가 있는 병영

양문규 시인



바닷물에 절을 대로 절은 방조림을 걸었다
 느티나무 푸조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모
 감주나무 광대싸리 보리수 두릅나무 인동초 땃땃이
 덩굴 배풍등과 온갖 꽃과 풀의 길
 서로서로 손을 잡고 어우렁더우렁 어깨를 걸고
 모진 바람과 해일을 막아
 물고기 떼까지 불러들인다는데
 이 세상
 나무는 나무대로
 덩굴은 덩굴대로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그대로 물건이 아닐까마는
 어떤 나무는
 꺾질이 통째로 벗겨져도
 끝끝내 썩지 않는 심장이 뛰고 있다
 세상 가장 큰 숲, 우리 어머니처럼

<시 감상>

바닷가 숲길을 걸어간다. “느티나무 푸조나무...”와 “온갖 꽃과 풀”이 흐드러진 숲길. 그(그녀)의 밝은 눈에 비치는 것은 숲을 구성하는 나무, 덩굴, 꽃, 풀과 같은 온갖 생명의 어울림이다. 그것들은 고유한 개체 “그대로 물건이 아닐까마는” 각기 따로가 아니라 “서로서로 손을 잡고 어우렁더우렁 어깨를 걸고 / 모진 바람과 해일을 막아 / 물고기 떼까지 불러들”이는 동화상생(同和相生)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처럼 시인은 남해 물건리 바닷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건방조어부림(勿巾防潮魚付林)’ 숲의 절경과 의미를 보여 준다. 그 방식은 언어유희를 가미한 생동감 넘치는 언술이다. 숲의 개체를 지명과 결부해 ‘물건’이라 부르고, 그것들이 “손을 잡고 어우렁더우렁 어깨를 걸고” 해일을 막아 내고 물고기 떼를 불러들이는 흥겨운 이미지다.

그 흥겹고 재밌는 시문의 이랑과 고랑에서 섬광처럼 반짝이는 깨달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가슴은 낮설고 새로운 감동으로 일렁인다. “어떤 나무는 / 꺾질이 통째로 벗겨져도 / 끝끝내 썩지 않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이 항구성을 표상(表象)하는 대목에 이르게 되면, 물건리 숲은 이제 더 이상 바닷가 작은 숲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모태로 충만한 “세상 가장 큰 숲”으로 승화된 새로운 동화상생의 세계가 된다. 이처럼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일상이란 숲길에서도 늘 똑같은 지루한 삶의 방식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새로움을 숨긴 세계가 우리의 개안(開眼)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차용국 시인·문학평론가

스마트폰 속의 군대, 새로운 게임체인저!

조명탄

김용우
월드투게더 회장
전 육군참모총장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은 이미 인류의 삶과 산업구조를 뒤바꾼 기술혁명의 축이다. 이 둘이 군인의 손안에서 군사 목적으로 결합하면 단순한 효율 향상을 넘어 새로운 군사혁명으로 이어지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 우리 군이 이 변화를 이끌 것인지, 뒤에서 따라갈 것인지가 이제 눈앞의 과제가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변화를 전장에서 가장 먼저 구현한 국가 중 하나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장관이 제시한 ‘스테이트 인 더 스마트폰(State in the Smartphone)’의 비전 아래 국민 서비스 플랫폼 디아(Diia), 디지털 전장상황 공유체계 ‘DELTA’, 화력 운용체계 ‘GIS Arta’가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로 묶인 것이다. 표적 탐지와 위치정보, 화력 요청과 결과가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에서 실시간 공유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키이우 방어와 흑해, 헤르손 전선에서 적 자산 식별과 타격 연계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스마트폰이 보조 장비가 아니라 전투의 중심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사실상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도구다. 더욱이 지금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태어날 때부

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면서 이를 삶과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다. 사회의 생활·교육·업무·금융은 모두 스마트폰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병영 안에선 여전히 스마트폰을 주변 장비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대의 현실, 안보환경 모두와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스마트폰 환경을 우리 군 임무 수행체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AI 기반 지휘통제, 정보·정찰, 교육훈련체계에 모바일 영역을 결합한다면 스마트폰은 평시엔 교육훈련·행정, 전시에는 전장상황 인식과 작전 지휘, 화력 운용, 군수 지원 등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상용 스마트폰을 군용화한 ‘택티컬 에디션(Tactical Edition)’을 전장에 투입하는 사례는 필요한 기술적 기반이 이미 상당 부분 준비돼

있음을 시사한다. 보안과 내구성, 정보 통제 우려는 분명 존재하나 이는 기술 부족이라기보다 관료적 관성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계적 시험운용과 엄격한 통제를 병행한다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군도 이제 ‘스마트폰 속의 군(Military in the Smartphone)’이라는 비전을 세울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창끝부대 현장 용사와 군의 지휘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손에 쥐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지휘 속도는 빨라지고, 행정 부담은 줄어들며, 전장의 민첩성·유연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다재다능함이 군의 일상과 전투현장에서 그대로 발휘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례가 보여 주듯이 미래전의 승부는 누가 더 빠르게 연결하고, 더 과감하게 실행하느냐의 경쟁이다. 스마트폰과 AI를 우리 군 혁신의 중심에 두고 체계적으로 군사화하는 군대만이 진정한 ‘톱티어(top-tier) 군대’로 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IT 강국의 시작...국립묘지 참배도 사이버공간서 가능해져

History in 국방일보

<2001년 12월 5일 자>

세계가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AI 선점을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세계사적 전환점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후면 이전과 전혀 다른 문명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AI 시대 이전엔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대를 전후로 현실을 넘어서는 가상공간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 흐름에 빠르게 탑승할 수 있었고, 오늘날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자 국방일보에선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인터넷 시대로의 적극적 동참을 알리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참배 인터넷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립현충원이 영현정보체계를 개발, 국민에게 개방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충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사이버 참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고, 개발업체 선정과 약 4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18만여 영현의 정보를 수록하는 체계를 완성해 국민에게 선



현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추모 글도 남길 수 있어 사이버 참배객은 영현과 관련된 사연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된 현충원의 역사는 곧 공간 확보의 과정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 동작동 현 위치에서 ‘국군묘지’로 시작됐습니다. 1954년부

터 약 3년에 걸쳐 묘역을 조성했고, 그 후 1968년 말까지 광장·임야 및 공원 행정지역 등 그 규모를 넓혔습니다. 1965년에는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며 더 많은 호국영령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143만㎡의 광대한 면적에도 안장공간이 부족해지자 1985년 11월 13일 ‘대전국립묘지’를 완공했습니다.

이후 동작동의 ‘국립묘지’는 1996년 6월 ‘국립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2005년 7월 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현충원’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대전국립묘지’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선 기자

보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기사는 “이번에 개발된 영현정보체계는 국립묘지 참배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현충 선양활동을 펴기 위해 현충원 인터넷과 국방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참배와 묘소·위패 찾기, 사이버 민원실, 사이버 국립묘지 등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이버 추모방법의 경우 현충원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를 클릭한 뒤 영현 이름을 검색하면 현충원 내 정확한 위치가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참배하기’를 누르면 조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해당 위패 또는 묘소가 등장하며 순서에 따라 분향과

국방일보

발행인 이은영 편집인 김가영

1964년 11월 16일 창간(월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군947-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